

글로벌 시장을 향해 정진하는 기업 보성파워텍(주)



보성파워텍(대표이사 임재황)은 1970년 설립 이래 전력 산업의 초석인 각종 전력기자재를 생산, 판매해온 전력 기자재 종합 메이커 기업이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인 전력산업과 궤를 같이해 온 만큼 전력계 중소기업 중 에서 보성파워텍의 위상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보성파워텍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 지속적인 기업체질 강화, R&D분야 투자, 영업력 배양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플랜트 철골 생산라인을 충주공장에 확장함과 동시에 환경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등 매출 규모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준을 다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보성파워텍은 지난 1991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옥외용 가스차단기, 건식형 중성점 접지리액터, 타임스위치, 대용량 전선휴즈, 가공선지지대, 송전선로용 썬기형크래프, 낙뢰표시기, 건식형 분로리액터, H형 스틸폴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전력산업 현대화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기술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의 우수기업인 키포전기(일본), ABB SACE (이탈리아), 아사히전기(일본), 레이컴(미국), 버트럴 (미국)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그들의 선진기술을 지속적으로 Bench Marking하는 한편, 국내외의 KS, NT, ISO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보성파워텍은 지난 2009년 미얀마 국영철강 업체인 MEC사와 약 47억 원 규모의 송전철탑 제작 설비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추가로 29억 원 상당의 송전철탑 제작에 필요한 앵글 및 플레이트 가공설비를 수출했다.

미얀마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인 보성파워텍은 미얀마 정부의 대규모 전원개발계획 추진 계획에 따른 송전철탑 생산설비와 가공설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보성파워텍의 회사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성공적으로 미얀마시장에 진출한 보성파워텍은 미얀마 한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인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현지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성파워텍은 지난 40여 년 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탑(塔)’을 한 층 한 층 견고히 쌓아 나가고 있다. KEA

주요 연혁

- 1970 보성물산 설립
- 1980 중소기업형 전문기계 공장 지정
- 1983 1백만불 수출의 탑 표창(대통령)
- 1991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 1991 상호 변경, 보성중전기(주)
- 1994 ISO 9002인증 획득
- 1994 코스닥시장 등록
- 1995 KSA 9002 인증 획득(전기전자 시험연구소)
- 1998 ISO 9001 인증 획득(미국 ITS)
- 1998 NT(신기술)마크 인증 획득
- 2000 상호 변경, 보성파워텍(주)
- 2002 필리핀 현지법인 설립(BS POWERTEC. phis.inc)
- 2003 충주공장 준공
- 2006 원자력 품질보증(KEPIC)인증 획득
- 2007 신기술 제61호 지정(수직배치형 강관철탑)
- 2008 임재황 대표이사 사장 취임